

12

전통 깃든 산골짜기에 생태마을 꽃 피었네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 : 도토리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북한의 개마고원과 쌍벽을 이룬다는 곳이 전북의 진안고원이다. 우리나라 오지의 대명사로 불렸던 무진장 중 하나인 이 곳은 평균 해발 400m인 고원지대의 전형적인 특징이 잘 살아있어 그 청정함과 고즈넉함이 단연 매력이다. 진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이산의 위용이다. 해발 686m의 암마이봉과 680m의 솟마이봉이 산새를 누르고 봉긋 솟아있는 모습이 신비하면서도 아름답다. 자연적으로 축조한 마이산의 돌탑군은 현대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숙제이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 마이산 밑으로는 홍삼 스파가 인기를 끌고 있다. 홍삼을 활용한 고급 휴양 시설인 진안홍삼스파는 홍삼한방과 음양오행 프로그램을 가미한 국내 유일의 스파테라피시설이다. 진안의 인삼은 다른 지역보다 특히 향이 진하고 항암효과가 탁월한 사포닌 성분이 높다. 전국 생산량의 7.7%를 차지한다. 수삼이나 홍삼으로 판매되는 진안 인삼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섬진강의 시원인 데미샘과 금강의 청정수를 담수해 놓은 용담호도 진안의 건강한 이미지를 대변해 준다. 이처럼 진안은 특유의 청정자원과 건강한 웰빙 이미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내실있는 지역발전을 이뤄가고 있다. 진안의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는 또 어떤 특별함이 있을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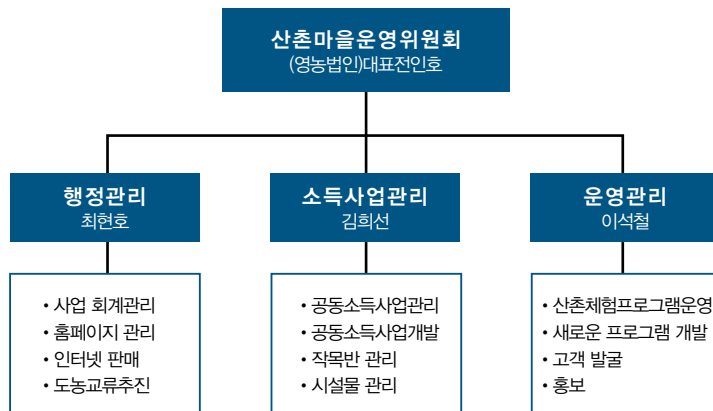
단계별 마을 만들기 사업이 밑바탕

진안은 이렇다 할 소득원이 없는 전형적인 산간지역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새로운 인삼주산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마이산을 비롯한 청정자원으로 ‘귀농 1번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흙 좋고 물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굶이굶이 산골짜기 마을까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진안은 자체적으로 단계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매년 50여개 마을을 선정하여 군비 150만원을 지원해 소규모 마을 정관 가꾸기 등을 추진해 온 ‘그린빌리지사업’과 매년 10여개 마을을 선정하여 군비 1~2천만 원으로 중규모 마을 가꾸기 및 소규모 소득 사업을 추진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그리고 매년 약 5개 지구를 선정, 마을당 약 5천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 건설팅을 통한 교육과 훈련 중심의 소득사업을 추진한 ‘옴마을가꾸기’ 등이다. 이들 사업은 진안군 독자사업으로 주민리더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마을만들기

대학을 낸 1회 실시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추진의식을 독려해 왔다.
이같은 자체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건강장수마을, 정보화마을 등의 소규모 국비사업을 추진하는 밑바탕이 되어 주었다. 준비된 마을은 경험을 살려 다음 단계의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었으며, 타 마을들에도 자극제가 되어 서로 경쟁하거나 상부상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중규모 국비사업인 산촌생태마을사업의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번 우수사례인 성수면 도토리 중평·음수마을의 경우는 참살기 좋은마을가꾸기와 건강장수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마을로 평가되었다. 또 중평굿이라는 전통 문화 자원과 인근 야산에 퍼져 있는 산야초를 테마로 하는 사업이 적절하다는 판단아래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도토리 중평·음수 산촌생태마을은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체계화된 운영과 관리, 합리적 시행을 위해 영농법인을 설립하였다. 법인 설

| 중평·음수 산촌생태마을 추진체계 |



립에 앞서 주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관을 수립하였다. 또한 법인 내부의 관리 기구를 분리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리고 운영의 합리적 형태를 갖추었다. 사업의 보조적 역할은 진안군 산림자원과 임간소득담당과 아토피전략산업과 마을만들기 담당에서 지원하였다. 사업 주축은 마을 주민이 담당하고 행정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전통과 웰빙식품이 차별화 포인트

도토리 산촌마을은 설계 용역사가 참여한 가운데 마을에서 20여 차례 이상 회의를 거쳐 사업구상을 하고 세부설계를 만들었다. 주민들의 자체 회의도 수시로 이루어졌다. 사업비는 2008년 74백만 원, 2009년 360백만 원, 2010년 84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274백만 원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방문자센터를 설립하고 우물정비, 모정지붕 개량, 목교 설치 등을 시행하고 산촌 체험을 위한 체험자의 집 두 동과 중평gut 체험장, 전통 주막 등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향후 소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양조장과 방앗간, 효소방, 저온저장고 등이 들어섰다. 산촌생활개선과 소득기반조성을 동시에 고려한 기반시설 구축이었다. 타 산촌마을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역시 친환경 웰빙식품 생산 시설과 전통테마체험 프로그램이다.

중평gut은 임실의 필봉gut과 더불어 전라좌도gut의 한 맥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통 마을gut이다. 2008년 제49회 한국민족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중평gut은 중평마을의 김봉열 선생께서 전승해 왔으며 좌도gut의 정통성과 맥을 그 원형대로 지켜온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산촌마을은 이 중평gut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별도로 중평gut 체험장을 조성하고 풍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평gut의





전통주 전문가 고영석

멋과 매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조성된 양조장과 효소방, 전통주막 등에서는 산촌마을 인근에서 수매된 곡물을 사용한 전통 식품들이 제조·판매된다. 마을 분들이 직접 운영해서 소득창출로 이어지면 좋겠으나 고령화와 사업역량 부족으로 인해 아직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는 원료는 산촌마을에서 구하고 사업은 술 전문가, 발효곡식 전문가, 약선요리 전문가 등이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통양조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는 전통주 전문가 고영석씨다. 재작년에 정년퇴직한 고 씨는 퇴직 전 5년간 술 공부를 따로 했다고 한다. 취미생활로 시작한 일이 귀농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된 셈이다. 누룩도 직접 만들고 효모배양까지 해서 발효주를 만든다. 산촌마을 방문객들에게 전통주 체험과 누룩 비누 만들기 등 체험거리도 제공해 주고 있다. 고 씨는 진안의 특산품인 홍삼으로 홍삼주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발효곡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이는 진안출신의 이완규씨다. 곡식을 발효하면 된장, 청국장을 먹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발효된 곡물로 밥을 하면 쉬거나 굳지 않는다. 또 발효곡식에 포함된 유산균, 효모균이 장 건강까지 지켜준다. 이 씨는 시원하고 깨끗한 이 지역 곡물을 사용하여 발효곡식의 효과가 훨씬 좋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전통주막에서는 약선요리를 판매한다. 약선요리를 배워 전통주막을 운영하고 있는 곽옥희씨는 현재 몸에 좋은 인근의 산야초를 활용하여 다양한 안주와 반찬 등을 만들고 있다. 원하는 약선요리를 미리 신청하면 준비해 준다고 한다. 이처럼 전통 웰빙 식품들을 먹어보기도 하고 만들어볼 수도 있는 곳이 이 곳 도토리 산촌생태마을이다.

두 마을이 모였으니 효과도 두 배

“버스도 안 다니던 산간오지마을이었다. 그러나 2009년도에 마을 사업이 시작되고 난 뒤 마을주민도 늘어나고 땅값도 올랐다. 이제 막 시작해서 유치원생 수준이겠지만 앞으로 소득사업을 키워서 더 부자 마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산촌마을 운영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전인호 이장님은 도통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이곳을 지켜 온 터줏대감이다. 전인호 이장님은 위쪽으로는 더 이상 마을이 없어 맑고 깨끗하기로는 비할 데 없이 청정한 마을이라고 중평·음수 마을을 소개했다. 그러나 여는 산촌마을처럼 중평·음수 마을도 고령화로 인한 애로점이 있었다. 앞에서 이끄는 젊은이 한 명만 있었어도 사업에 더욱 추진력이 붙었겠지만 그럴만한 인력이 없었다. 또 농사철에는 더욱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바쁜 농사철에는 비오는 날이나 야간을 이용해 회의를 지속하기도 했다. 이같은 어려움을 감안하여 2차년도 사업추진은 시공사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고 군에서는 시공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산촌마을 설계 초기 단계에서도 애로점이 있었다. 음수동 마을과 중평마을 2개 마을을 한 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각 마을에서 더 많은 사업을 끌어 들이기 위한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지속적인 협의와 선진지 견학을 통해 마을 주민들을 설득했다. 또 타 산촌마을 갈등사례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마을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마을 정관을 수정하여 마을 대부분인 조합원인 음수중평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음수동 마을과 중평마을은 하나의 마을로 수익배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



산림자원과 구관희 계장,
이영호 과장, 전인호 이장, 이건호 담당자

었지만 두 개 마을이 모여 하나로 뭉쳤으니 분명 효과도 배가 될 것이라 모두들 기대하고 있다.

생태 · 건강 도시 진안 화이팅

도토리 산촌생태마을은 이제 막 출발을 알렸다. 홈페이지를 구축(www.중평음수.kr)하였고 진안군 홈페이지에 산촌마을 소식을 게재하는 등 홍보도 시작했다. 6개 산촌마을 홍보용 리플렛 1,000매를 배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고향을 떠나있는 마을 출신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운영은 아직이다. 필요한 것은 역시 인력일 것이다.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의 부족한 사업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양조 전문가 등을 영입하여 마을에서는 농산물을, 전문가들은 가공·판매에 주력하는 상생 체계를 구축하였지만 추후에는 마을에서 사업역량 및 기술력을 습득하여 자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마이산 도립공원과의 연계사업도 추진 중이다. 도토리 산촌생태마을은 전주권에서 마이산 도립공원을 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마이산을 찾는 연간 80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마을을 소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진안은 홍삼한방산업,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유기농밸리 100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제1 생태 · 건강 도시를 꿈꾸고 있다. 산촌생태마을의 성공적 안착은 뿌리까지 튼튼한 생태 · 건강 도시 진안으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청정한 환경만큼 청정한 미래를 꿈꾸는 진안의 노력을 응원한다.
